



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드디어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편해진 부분도 있고 어려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을 2회로 나누어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7월에 입국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2010 년 7월부터 그 일부가 시행 되었고 또 2012 년 까지는 전부 시행될 예정 입니다. 바뀐 부분 중에서 직접 외국적 시민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부분에 대해 1월호, 2월호로 2회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 두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사별등 부부 관계에 큰 변화 있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때 가지고 있던 재류기한까지 특별한 수속도 필요없이 일본 에 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혼· 사별하면 2 주간이내에 입국관리국(시야쿠쇼는 아님)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 온지얼마되지않아 아이도 없는 경우는이혼· 사별에 의해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을 잃어 출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재류자격의 근거가 되는 활동(근무처나 가족 관계 등)이나 주소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 재류자격 의 변경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 개월 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 자격이 취소당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벌써 2010 년 7월 이후에 입국관리국에서 갱신 등의 수속을 한 분은 아시겠지만 신청 방법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류 기한 만기 2개월 전 부터 밖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3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OK가 되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엽서가 왔습니다만 이 엽서도 원칙적으로 지금부터는 보내지 않는다고합니다.

지금은 아직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한 단계 이므로 신청시는 엽서를 써 보냅니다만 그 엽서가 오든 오지 않든 미리 결정된 시기(입국관리국에서 여권에 날짜를 쓴 종이를 호치키스에 찍어 줍니다)에 다시 입국관리국에 가서 여권에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처음 일본에 온 것이 1월 1일이었다고 하면 이후에도 갱신을 반복할 때마다 「재류 기한 00년 1월 1일」과 같은 일자로 갱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전년의 12월 1일에 신청을 해 12월 10일에 갱신 허가가 나왔을 경우도 여권에 찍히는 허가증명인은 재류 기한의 날로부터 계산되어 「재류 기한 00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재류 기한 00년 12월 10일」이 되어, 다음 번의 재류 기간은 실제로 갱신 허가가내린 날로부터 계산되게 됩니다. 며칠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빨리 내는 것이 안심할 수 있겠지요.

해설·(행정 서사) 마에다 미호

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2시 1 쵸, 근처의 체육관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만들기, 친구 만들기, 스트레스 해소 등체육관은 꿈의 공간입니다.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체육관은 2시 1 쵸의 주민은지역이 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용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 분, 친구와 스포츠로 겨뤄보고 싶은 분, 각종 운동을 즐기세요. 문의는

● 후지미시시민종합체육관 **049-251-5555**

● 오오이종합체육관 049-261-2611

●미요시마치종합체육관 **049-258-0311**

자전거를 함부로 세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후지미노역 주변에 자전거를 세워선 안 되는 구역이 지정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트러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갑자기 철거 되어 오오이 육교 시모히가시가와의 자전거 보관소에 찾으러 갔다고 하는 외국적 시민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1,000 엔, 오토바이는 2,000 엔의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니 주의합시다 후지미노역 주변에 자전거를 자주 세워 두신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지미노시야쿠쇼도로과 (전화 220-2072)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관공서에서 상담을 핸드폰으로 통역합니다 12월호에서도 소개했던 「관공서에 설치된 전화로 모국어통역」. 아직 상담 건수가 적어 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쵸는 아사카시, 카조시,카와구치시카와고에시, 한노우시, 히가시마츠야마시, 나메카와쵸, 미사토시, 와라비시입니다. 이 지역부근에 살고 있는 분, 꼭 관공서에 가서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후지미시 체육관

후지미노시 체육관

미요시마치 체육관

●기시카미 유카의

외국적시민의 눈 • 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물」

내가 처음으로 해외에 갔을 때에 놀란 것은 「수도물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고 주의 받은 것이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PET 병의 물이나 한 번 끓인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수도물은 아주 깨끗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요리에 이용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직접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물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질이 좋은 음료수의 확보나 배수처리등, 물에 관련된 사업이 「물비즈니스」라고 불려 일부의 기업 등에서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경도, 또 민간기업에서도「물비즈니스」에 움직이기 시작한곳도 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마실수 있어서 공기와 같을 정도로 손 쉽게 마실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특별히 고마워하는 일도 없이 당연한 듯이 수도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는 물 부족이 심각한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생활에서빠뜨릴 수 없는 것, 귀중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어 공부하러 오세요. 조금 걷긴 하지만 새 교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사무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첫번째 신년입니다. 후지미노역에서 조금 멉니다만, 배우시는 분들도 다니시기에 익숙해 지셨는지 이전의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국의 새 친구가 생깁니다. 꼭, 친구나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아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공부하러 와 주세요. 처음이어서 후지미노역에서 오시는 길을 모르시는 분은 모시러 갑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 049-256-429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본어 교실은 매주 목요일 10 시부터 12 시까지 입니다

www.ficec.jp/foreign/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분 걸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